**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5B – 마태복음 11-12장: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5B 강의, 마태복음 11장과 12장,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성령이 모독을 당하심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대한 이 한 강의에서 우리는 꽤 큰 덩어리를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자료 분석 첫 부분을 보충 자료 25페이지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이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12장 1절 이하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말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사명이나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문학적 목적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요한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태가 423년 이래 강조해 온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대중의 찬사와 엇갈렸음을 보여줍니다(4:25, 7:28, 8:1, 18:9, 8:33).

대중의 찬사와 유대 지도자들의 점점 커지는 반대가 균형을 이룬다(5:20, 7:29, 9:3, 11, 34).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에 대한 질문은 마태복음 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의 의심은 종종 경시되지만, 그 의심은 온전히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3장 13절부터 17절까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자 그의 확신은 필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대답은 그가 심판의 약속이 아니라 구약의 구원 약속의 성취에 다시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집중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11:6. 요한의 의심과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다루신 방식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그들의 주석에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마태복음 4장부터 10장 전체를 해석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요한이 전했던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조차도 이를 의심할 수 있다면,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적 말씀과 행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집중한다면,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 구원의 임재에 맞춰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11장부터 6장까지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말라기 3장 1절에 언급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언 시대의 종말이라는 중요한 시점, 즉 위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로 새 언약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8절과 비교하십시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진전을 예고했지만, 그는 그 나라를 공격하는 난폭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엘리야의 역할과 같았습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생활 방식이 정반대였던 요한과 예수는 악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1장 16절부터 19절).

해그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너무 거룩하고, 예수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마도 지혜로 의인화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실 것입니다(11:19).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노골적인 비방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분석은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요한과 엘리야에 대한 신학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든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은 11장 14절과 15절에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와 동일시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논의의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장차 주님의 날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6장 14절, 17장 10절, 27장 47절, 4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 의 미래 역할을 확언하시는 듯합니다 .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죄송하지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구절들에서 요한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요 1:21),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언급됩니다(누가복음 1:17). 이는 열왕기하 2:9부터 15까지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 한 방식 을 독자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 요한은 엘리야의 부활은 아니었지만, 엘리야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안타깝게도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11:14, 21:32와 비교해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엘리야가 문자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로 넘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받은 도시들, 아니, 자신의 사역을 받지 못한 도시들에 내리신 엄숙한 화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야 합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비난은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엄한 말씀이지만, 23장 13절 이하에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독자들이 의문을 품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대다수의 무리가 기적의 요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9:6).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축복을 직접 경험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적이 회개라는 왕국 메시지를 증명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비교해 보세요. 왕국의 종말론적 축복은 열렬히 받아들였지만, 회개라는 윤리적 의무는 거부되었습니다.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보상과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비례적 책임의 원칙,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27장(실례합니다)과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비교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은 소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사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제2 고향인 가버나움에게 내리신 계시만큼 명확하고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4:13; 9:1). 따라서 티레, 시돈, 심지어 소돔에 대한 심판은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보다 더 견딜 만했을 것입니다. 이 세 도시는 오늘날 기독교에 익숙하면서도 경멸심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복음 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교회의 회원이 되거나 , 심지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지만,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과,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슬픈 증거입니다.

브루너의 주석은 복음의 축복과 경고에 무관심해진 우리에게 이 구절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비록 적절하지만 날카로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1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에게 이미 매우 친숙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반대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첫째, 그는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둘째, 그는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예수님의 왕국 메시지를 거부한 마을에 대한 심판의 선포에 이어 나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응보다 반대에 대한 더 나은 대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택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충만함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마치면서, 불신앙에 대한 첫 세 구절, 11장 2절부터 19절, 그리고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절,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와 그의 사자들 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거론되어 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반대가 점점 더 자주 언급되었던 구절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1장이 전개되면서 상황은 명백히 암울해집니다.

메시아의 선구자가 감옥에 갇혔고, 그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마태복음 11:1-3). 예수님은 말씀과 말씀,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 주시며(11:4-6), 요한의 비할 데 없는 위대함을 칭송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만하고 완고하게 그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맹렬히 공격받고 있습니다(11:12, 16-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지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서 주시는 안식을 찾도록 강요받았습니다(11:25-30).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 겸손한 메시지를 점점 더 거부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불신앙과 믿음의 구절들은 이러한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11장 25절부터 30절에 함축된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비할 데 없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들 에 대한 이전 선언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 핵심적인 진술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구원의 임재를 상징합니다(마태복음 1:23).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는 이사야 42장 1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들 의 결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9장 6절에서 아버지께서 인자께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박해의 때에 제자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10장 32절과 33절). 아들의 위대함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이어지고,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아들의 고유한 권세에 근거한 대명령이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11장 27절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고귀한 용어로 아들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지식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선택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온다고 직설적이면서도 우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읽는 독자는 11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인간의 결정에 대한 호소와 결합되는 방식에 놀랄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두 교리 영역에서 종종 양극화를 겪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들이 종종 이 문제들을 나란히 언급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며, 그 주권적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만 작용합니다. 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제자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멍에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의 제자도에 대한 은유와 일치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의미에서 가벼우면서도 쉬운 짐이었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구전 전통을 지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15:3 이하, 23:16-24).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바리새인들의 멍에보다 덜 엄격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5:20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멍에는 바리새인들의 멍에에 비하면 가볍지만, 여전히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분이 5장 17-48절에서 토라의 확실한 선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반면, 그들은 교만하고 허세를 부립니다(6 장 1-18절, 23장 1-12절). 그들의 전통은 토라가 요구하는 의무를 모호하게 하고 심지어 어기기도 합니다(15장 3절과 6절). 그러나 예수님은 토라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심으로써 토라의 핵심을 짚어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가벼운 멍에를 메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12장 1-8절,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면서 무고하게 곡식을 따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을 때 일어난 논쟁을 묘사합니다. 12장 7절과 신명기 23장 25절의 배경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반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 왕, 성전, 그리고 안식일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그분은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다윗의 행적을 근거로 한 주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터무니없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핵심은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정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3장 25절의 율법에 내포된 인도주의적 우려를 무시합니다. 이 율법은 밭을 지나가면서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 제정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염려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에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27.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안식일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궁극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과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이제 12장 9-14절에서 또 다른 논쟁,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해진 병 고침에 대한 논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12장 1-8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근본적인 교착 상태를 더욱 확연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안식일 율법과 자비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예수님의 병 고침과 같은 자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 올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신 것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반박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치유가 기록된 토라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믿으셨습니다.

법적 분쟁은 별개의 문제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제거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종교적 분쟁에 대한 다소 가혹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출애굽기 31장 14절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더 비열한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셨고, 따라서 질투심 또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증가하면 바리새인들의 인기와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서사적 내용의 덩어리입니다.

이 서사 블록에서 마태복음의 삼중 구조는 이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구조는 세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절은 불신앙을 강조하는 두 구절과 그 뒤에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25페이지의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본문 중 두 번째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2장 1-8절과 9장 14절은 불신앙을, 12장 15-21절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2장 1-4절과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를 인용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에서 물러나신 이유와, 병을 고쳐 주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능력을 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등이나 대중을 선동하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역에서 온유하고 자비로운 분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7절과 11장 2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 이사야 42장 1절과 42장 4절은 그 종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아들들 중 많은 이들에게 점점 더 배척당하셨지만(8장 12절과 비교), 마태는 특정 이방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는 많은 구절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민족을 향한 전 세계적 사역을 위해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22:9, 24:14, 25:32, 28:18-20을 비교해 보십시오. 셋째, 이사야 42:1은 종의 사역이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악령의 능력이라는 비방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은 성경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영을 비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판명됩니다. 12장 31절과 32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겸손과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11장 29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메시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선동적인 수사를 동원한 이기적인 다툼으로 왕국을 확장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결국 정의를 승리로 가져올 것입니다. (마 12:20)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분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 역시 희생적인 봉사의 길이어야 합니다.

16:21-25과 20:25-28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인 소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12:22-37에서 예수님과 귀신들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이 부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눈멀고 벙어리이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군중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합니다. 다른 한편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기적과 군중이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령님을 귀신의 왕자와 협력했다는 비난으로 비방합니다.

12:22-24. 예수님의 답변은 본문의 나머지 부분인 12:25-37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시며,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십니다(12:25-28).

그런 다음 그는 왕국이 사탄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을 약탈하는 것에 비유하며, 왕국 사역 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12:29-30).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12:31-32). 더 나아가, 그들의 비방하는 말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종말론적 파멸을 예고합니다. 마치 무가치한 열매가 나무가 무자비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12:33-37).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사탄의 결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의 구원 능력이 사탄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침범이나 결박은 요한계시록 20장 1-10절에 나오는 무저갱에 갇힌 사탄의 결박에 대한 묘사와 어떤 면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탄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결박당하여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비교됩니다. 전천년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하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의 결박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견해 모두 어느 정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무천년설자들은 사탄의 제한된 능력이 여전히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사실상 산산이 조각났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저항해야 하는 강력한 적입니다.에베소서 6:11 이하, 야고보서 4:7,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사탄은 미래에야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0절.신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권세가 이미 적을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2:31, 16:11, 사도행전 26:18, 그리고 골로새서 1:13과 같은 다른 구절들).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탄의 악한 일을 완전히 파괴하셔서 새 땅에는 오직 의만이 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요한계시록 21, 22장).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엄숙한 말씀은 모든 독자가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정확한 본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선의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열정적인 설교자들은 때때로 이 구절을 이용하여 복음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청중을 위협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은 은혜의 날을 죄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불신앙이라는 일반적인 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마태복음 구절을 요한복음 3:18, 요한복음 16:9, 요한일서 5:16과 같은 다른 본문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앙이 심각한 만큼, 이 구절을 불신앙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틀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구체적인 상황은 예수님의 영으로 강화된 기적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그분의 메시아적 지위(12:23)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9:6)에 대한 증거로 여겨졌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12:29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 사역이 압도하는 바로 그 세력과 협력한다고 비난함으로써 메시아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을 비방합니다. 따라서 해석가들은 이 본문을 일반적인 불신앙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요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증거를 악마적 증거로 왜곡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당연히 믿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파멸의 불변하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맹렬한 말씀에 대해 그분의 말씀을 증명할 표적을 요구하며 반응합니다 . 이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행하신 기적적인 표적에 대해 비방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38-45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45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구약성경에 나오는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례들과 대조합니다(12:38-42).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불신앙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12:43-45).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더 악화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회개에 대한 암시적인 경고이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종말론적 파멸에 대한 은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2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완고한 불신의 악함을 강조하는데, 다른 구절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들을 사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입장이 지지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심이 아닌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했던 모습은 니네베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비교적 적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내용의 냉혹한 예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더 많은 표적이 있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45절의 비유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악령이 사라진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청소되었지만, 아직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는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국가적 회개는 없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46-50절에 대해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서사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사적 구성의 삼중 구조는 마태복음 11장 1-6절 주석과 이 노트 24, 25쪽에서 이미 논의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불신앙에 대한 두 구절과 믿음에 대한 한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 장 50절에서는 이 세 부분 중 두 번째 부분인 12, 32-37절과 12, 38-45절이 불신앙을, 12, 46-50절이 믿음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13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담화를 시작하는데, 이는 13장 53절의 특징적인 전환 이후 다음 이야기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12장 46-50절에서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피상적인 제자도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긍정하시므로, 여기서 핵심은 가족에 대한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입니다.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화한다고 잘 표현했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19:29).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배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0:21, 35-37).

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3:8).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가족의 관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6-50절에 묘사된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요약하여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마태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겪어 오신 반대와 배척의 증가를 점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이 장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12장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완전한 균열을 초래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은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 성전, 안식일, 요나,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사악하고 간음하는 세대의 반대가 심해지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비유를 더 많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적들에게 진실을 숨기셨습니다.